

『三指禪』卷一을 통한 周學霆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

金基郁·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ABSTRACT

Following is the result through translating, studying, and analyzing 『San Zhi Shan(三指禪)』, the book worked by Zhou Xue Ting(周學霆).

1. The chapter of 『Mai Xue Yuan Liu(脈學源流)』 explains the Xiang Shu Xue(象數學) viewpoint, the part that pulse is based on Lu guan(律管).

2. The chapter of 『Liu Bu Mai Jie(六部脈解)』 explains that emphasizing Shen(神) through understanding the shape of pulse(脈象) is more important than the locating the area of the shape of pulse(脈象).

3. The chapter of 『Zuo Xin Tan Zhong Gan Dan Shen Xiao Chang You Fei Xiang Zhong Pi Wei Ming Da Chang Bian(左心膻中肝膽腎小腸·右肺胸中脾胃命大腸辨)』 exhibits the different view about the position of pulse from Li Shi Zhen(李時珍)'s, the chapter in which Zhou(周) arranges Heart·Small Intestine·Liver·Gall Bladder·Kidneys and Bladder(心·小腸·肝·膽·腎·膀胱) in left hand and Lungs·Large Intestine·Spleen·Stomach·Kidney and The gate of Vitality(肺·大腸·脾·胃·腎·命門) in right hand.

From the above results, I'm sure that 『San Zhi Shan(三指禪)』 which has headed down to descendants as the special book about the study of pulse has developed the theory of pulse. Therefore I expect that the more profound study about this will be going on.

Key Words : 『San Zhi Shan(三指禪)』, Zhou Xue Ting(周學霆), 『Mai Xue Yuan Liu(脈學源流)』, 『Fu Shen Chi Shu Si Da Gang(浮沈遲數四大綱)』.

접 수 : 2000년 10월 30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김기욱·박현국,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교실

(054-770-2664, mazel@chollian.net)

I. 緒論

脈診은 고대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하여 축적되고 체계화되어 이루어진 “以常衡變”, “以變識病”의 진단법으로 오늘날 한의학의 辨證施治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받고 있으며, 역대 의가들이 맥진의 연구에 바친 노력은 바로 맥진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맥진이란 四診 가운데 切診에 속하며, 질병의 陰陽寒熱 虛實 表裏와 豫後를 판단하는 관건이 된다. 脈은 내부로는 五臟과 상통하며 외부로는 體表와 肢筋과 연결되어 內部五臟과 外部體表를 연결하는 氣血의 통로로 인체 내외에 상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또한 천지 음양의 변화에 따라 상하로 浮沈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운행하여 생명활동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脈을 “開天闢地, 生人之總司, 有常而不間斷者”¹⁾이라 하며 “命之本, 氣之神, 形之道”²⁾라 한다. 그러나 맥진은 미세한 변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外證에 비해 식별이 어렵고 形氣, 性格, 年齡, 周圍環境, 飲食, 勇怯 등에 의해서도 변하며³⁾, 의가들마다 맥진이론에 서로 다른 학설이 제기되었다. 또한 王叔和가 언급한 “在心易了, 指下難明”⁴⁾이라 하듯이 “脈診은 幽而難明하여 말로 전하기가 어렵다”⁵⁾고 하였다.

맥진을 통해 질병을 최초로 진단한 의가는 扁鵲이며, 또한 脈診에 관한 최초의 문헌적 기록이 나와있는 곳은 『黃帝內經』이다. 『황제내경』에서는 平脈, 脈의 陰陽, 三部九候, 脈, 人迎氣口脈, 寸口脈, 五臟脈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실제 임상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학적으로 맥학에 관한 시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秦漢代는 『내경』의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시대였고, 兩晉·隋·唐·五代는 진·한대의 의학을 바탕으로 脈理를 확립하는 시기였다. 또한 宋·金·元代에는 확립된 이론에 대해 의가들이 해석을 시도

하는 시기였고, 明·清代에는 古經에 근거하여 前代의 이론을 고증하고 재확립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명·청대에 진단에 관한 저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脈診과 舌診에 관한 것이 많아 四診을 통한 질병의 이해와 치료법칙이 한층 심화되어 임상에 쉽게 응용하도록 하였다.

『三指禪』은 清代의 名醫인 周學靈이 편찬한 맥학 전문 저서로 3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此書에는 맥을 논함에 있어 緩脈을 표준으로 삼고 아울러 浮沈遲數을 4대강으로 삼고 있으며, 脈象의 대비를 통하여 여러 종류의 맥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모두 27맥을 열거하였다. 또한 脈診을 통하여 病因·病理·症候·治法과 方藥을 결정하여 여러 종류의 질병의 형태를 논술하여 실제 임상에 응용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최근 맥학에 관련된 국내의 金⁶⁾, 朴⁷⁾, 黃⁸⁾ 등의 연구와 국외의 莊⁹⁾, 趙¹⁰⁾, 張¹¹⁾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周씨의 학술사상을 『三指禪』¹²⁾권1을 통하여 맥학의 원류·진맥의 부위·尺寸과 六部脈에 관한 이해·각종 27맥의 특성과 증상·七診의 方法과 命門·三焦·心包絡·膻中·丹田 등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여 연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周學靈의 生涯와 『三指禪』

(1) 周學靈의 生涯

주학정(1771~1834)의 字는 荊威이고 自號를 夢覺道人이라 칭하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周神仙이라 불렀

1) 喻昌,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6. p.29
 2) 劉完素, 『河間三六書』, 서울 : 成輔社, 1976. p.14
 3) 李仲梓, 『醫宗必讀』,台北, 文光圖書公社, 1977. p.55
 4) 福州市人民醫院 校釋, 『脈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84. p7
 5) 『醫宗必讀』; 前揭書, pp.54~55

6) 金泰熙 외1人,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 研究』, 慶熙大學論文集, 1987 Vol.10, pp.375~414
 7) 朴炫局 외1人, 『黃帝內經』의 脈理法과 診脈法의 變化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大學院, 1992
 8) 黃元德 외1人, 『氣口脈診法의 臟腑配位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9. Vol.12, No.1.
 9) 莊澤澄, 『中醫診斷學』, 科學出版社, 1992
 10) 趙恩儉, 『中醫脈診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0
 11) 張家錫, 『中醫診斷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1
 12) 『三指禪』의 版本에 관하여 考察에서 밝히기로 한다.

다. 13) 湖南 寶慶府의 邵陽縣 三溪五都(지금의 湖南省 邵陽市 新邵縣 爽溪鄉 庫里村) 사람이다. 어려서는 과거 공부에 매진하여 詩書에 몰두하였고, 13세에 童子試에 응시하여 어려서부터 이름을 날렸다. 20세 이전에 몸에 병이 생겨 儒學을 포기하고 醫學에 뜻을 두었는데, 博學한 儒學을 바탕으로 『靈樞』, 『素問』, 『難經』, 『傷寒雜病論』, 『脈經』 등 의학 전적에 깊이 연구하여 의학 이론에 정밀하였다. 그는 항상 집안이나 혹은 외출하여 의술을 시행함에 있어 “用藥多奇中”이라 하였다. 저서에는 『醫學百問』, 『外科便覽』, 『三指禪』 등 여러 종류가 있다.

(2) 『三指禪』의 概要

『삼지선』은 맥학 전문서적 가운데 하나로 清代 乾隆 嘉慶年間 湖南省 寶慶府 名醫인 周學露의 저작이다. 14)

『삼지선』은 맥을 논함에 있어 緩脈을 표준으로 삼아, 27맥의 첫 머리에 열거하였다. 그 나머지 26맥은 病脈으로 삼았고, 陰陽을 대비하는 방법을 함께 취하였다. 즉 浮와 沈 그리고 虛와 實 등 상호 대비와 음양의 표리를 통하여 4강으로 삼았으며, 寒熱虛實이 분명하면 기타 여러 종류의 맥학 저작과 비교하여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여 전문을 넓혔다. 각각의 맥은 脈訣의 다섯 내지는 일곱 글자의 음운을 사용하여 글자가 아주 아름답고 생동감이 있게 하였다. 讀者로 하여금 읽을 때는 소리가 낭랑하고 암송할 경우에 기억하기 쉬워 실제로 맥학 분야에 있어 보기 드문 名著이다.

(3) 『醫籍通考』에 기재된 『삼지선』 提要

『의적통고』에는 歐陽聘侯와 余正煥의 서문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5)

歐陽聘侯의 原序의 내용은 “同邑의 周君은 풍채가 신선과도 같은데 醫道로써 많은 생명을 살렸다. …… 丁亥의 겨울에 周君이 손으로써 바로잡으니 『三指禪脈訣』이라 하고 나에게 序文을 청하길, 나는 ‘어리석은

자에게 道를 물으니 위태로운 일이요’라 하여 …… 緩이라는 문자를 가만히 생각해볼 때 그 역시 二十七脈 가운데 하나이지만 周君은 이를 소상하게 이해하고 꿰뚫어 홀로 마음에 연음이 있으니 提綱을 싣고 난 이후에 서로 비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余正煥은 原序에서 “나는 비로소 建州의 周夢覺을 만나 脈에 대한 그의 이론을 알았고 손을 들어 바로 얻고 손가락을 정지하여 놓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알았다. …… 張朱李劉가 맥학의 오묘함을 모두 밝혔고, 실제로 周씨는 禪家에서의 자기수련에 전념하여 얻은 것이며 …… 27脈 가운데 유독 緩字를 비결로 삼아 진실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잡고 근본을 펼쳐 나에게 기준이 되었다. 七診의 法을 주로 하여 禪機를 직접 지적하고 奇經八脈으로 禪經을 널리 밝혔다. …… 脈은 病의 근본이며 손가락은 또한 脈의 근본이다. 夢覺道人이 緩字를 취하여 근본을 삼았다. 脈으로 病을 정하고 脈이 정해진 연후에 그 본을 탐구하였다. …… 손가락과 사물의 변화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周易』의 깊은 생각을 통하여 神을 파악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4) 版本

『醫籍通考』에 기재된 현재 남아 있는 『삼지선』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16)

初刻本

清道光八年戊子(1828)星沙挽鶴堂刻本

清道光十二年(1832)會友堂刻本

清道光十二年大文堂刻本

清道光十二年刻本

清道光十三年癸巳(1833)刻本

清咸豐十一年辛酉(1861)讓堂刻本

清湖南書局刻本

清光緒二年丙子(1876)刻本

清光緒二十一年乙未(1895)淡雅書局刻本

清光緒二十九年(1903)文益書局刊本

益光書局重刻本

1912年江東書局石印本

1914年上海會文堂書局石印本

13) 前掲書 : 『三指禪』, p.1

14) 『上掲書』 : p.1

15) 裘沛然 외24人, 『中國醫籍通考』卷1,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pp.919-921

16) 上掲書 : pp.921-922

錦章書局石印本

大成書局印本

1930年中醫書局鉛印本

1933年蕪城魏鳳山校刊本抄本

1956年人民衛生出版鉛印本

본 논문은 周樂道 외 2인 점교 中國中醫藥出版社·北京·1992년의 판본을 사용하였다.

(5) 解題

『삼지선·總論』에서 周씨는 “약관의 나이에 이르기 전에 병으로 儒學을 버리고, 마음을 의학에 두어 모든 서적을 연구하여, 한 글자의 스승도 없이 맥학을 독학하다가 神人이 緩이라는 한 글자를 지적하기에 緩字를 이끌어 소상하게 이해하니, 전신의 脈症이 순식간에 三指의 손끝에 모두 귀납할 수 있었다. 거금 40여년 동안 큰 읊 여럿을 지나오면서 病情을 얻은 것이니 경험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

『삼지선·七診辨』에서 『맥경』의 내용인 “七診에 있어 첫째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神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외부의 일을 잊고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호흡을 고르게 하여 氣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皮膚之間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肝脈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肌肉의 사이를 손가락으로 점점 세게 눌러 胃氣脈을 살피는 것이다. 여섯째는 뼈의 위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게 눌러 臟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맥의 왕래를 상세히 관찰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맥경』에서 말한 七診辨別의 관건은 臨床의 時間을 뜻하지만, 周씨는 “七診辨別의 관건인 時間은 임상에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平常時에 홀로 고요하게 내면으로 자신을 기르고 평온하고 조용하게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修養法으로 아무런 잡념도 없이 神을 모으고, 외부에 관한 생각을 잊고, 호흡을 고르게 해야만이 맥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마음으로써 神을 존재케 하는 것이 存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神을 존재케 하는 것이 存이다. 의식적으로 생각을 잊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써 생각을 잊는 것이 忘이다. 코로써 호흡을 하는 것이 呼吸이 아니라, 손가락으로써

호흡을 하는 것이 呼吸이다. 이로써 장부와 胃氣脈의 존재여부 맥의 왕래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니, 이것이 『三指禪』의 解題에 해당되는 周씨의 진술이다.

周씨의 弟子인 方伯疇는 『삼지선·原序』에서 “醫者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脈의 이치에 이르러서는 더욱 뜻이 모여야 한다. 夢覺道人이 유학을 버리고 醫業을 따르기를 사십여 년에 범상치 않은 뛰어난으로 생명을 살린 일은 셀 수가 없다. …… 텅 비고 홀로 쓸쓸하게 높이 솟아 면밀함과 정성이 다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도 없으며 이것이 中에 있어 영묘한 큰 작용이 있다. 내가 이에 제목을 지어 말하길 『三指禪』이라 하였다. 禪은 오묘함이다. 오묘하고도 또 오묘하며 많은 오묘함으로 들어가는 門인 것이다.”하여 『삼지선』이라 명명한 연유를 밝히고 있다.

2) 『三指禪』에 記載된 周學霆의 脈學에 關한 認識

(1) 「脈學源流」

周씨는 “黃鍾의 數는 九分이기에 氣口의 수가 역시 九分이어서, 律管이 갖춘 寸의 數에서 形이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맥의 움직임은 陽이 九分에 뜨고, 陰이 一寸을 얻어 황종을 이룬다”고 하여, 寸관을 본받아 맥을 정하는 象數學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周씨는 褚澄의 “女子는 陰에 해당하므로 尺寸을 거꾸로 살핀다”는 이론에 대하여 “左寸은 受命之根에 해당되니 心肺脈을 兩尺에서 진단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하였다.

周씨는 維宗, 吳草廬, 朱考亭, 李時珍, 李中梓 등의 학설을 비교하여 脈位에 관하여 논술했고, 『삼지선』은 「내경」, 「난경」, 「맥경」의 뜻을 밝히는데 불과하다고 논술하고 있다.

(2) 「定脈部位」

周씨는 晦庵朱子가 郭長陽의 醫書를 跋文을 인용하면서, “오직 高骨이 關部가 됨으로써 尺寸을 정함이 마치 朱子가 郭長陽의 跋文을 얻은 것과 같은 믿음으로

확정한다"고 하였다.

(3) 「尺寸解」

周씨는 “高骨은 關部가 되며, 關에서 魚際까지는 1寸을 寸이라 하고, 關에서 尺澤까지는 1尺이라 한다. 寸·關·尺을 합하여 三部가 됨에 왜곡하여 분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4) 「六部脈解」

周씨는 “六部の 맥은 「脈要精微論」에 근거하여 寸·關·尺을 살피며, 左寸에서는 心, 左關에서는 肝, 左尺에서는 腎을 살핀다. 右寸에서는 肺, 右關에서는 脾, 右尺에서는 命門을 살핀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脈象의 부위를 구분보다는 맥상의 이해를 통하여 神을 밝힘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右尺은 火의 일을 수행하므로 火가 土를 生하여 右關은 脾가 되며 土가 金을 生하여 右寸은 肺가 된다고 하였고, 左尺은 水의 일을 수행하므로 水가 木을 生하여 左關은 肝이 되며 木이 火를 生하여 左寸은 心이 된다고 하였다.

(5) 「左心膻中肝膽腎小腸·右肺胸中脾胃命大腸辨」

周씨는 ‘小腸의 丙火가 腎水와 함께 기거할 수 없고, 大腸의 庚金이 命門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며 장부 표리의 이론에 근거하여 ‘左手에는 心·小腸·肝·膽·腎·膀胱을, 右手에는 肺·大腸·脾·胃·腎·命門을 배속’하였다.

(6) 「定至數」

周씨는 “脈을 파악할 때는 먼저 맥상이 이르는 횟수를 살피야 한다. 숨을 내쉬는 것은 심과 폐가 주관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은 간과 신이 주관하는데, 간의 작용이 한번 이르고 신의 작용이 한번 이른다. 脾脈은 土가 사계절에 왕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이를 平脈이라 한다”고 하였다.

(7) 「二十七脈名目」

周씨는 緩脈을 平脈으로 삼아 나머지 26맥인 虛·實·長·短·弦·弱·滑·澁·芤·革·緊·散·濡·牢·洪·伏·促·結·動·代의 病脈

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脈이 和緩한 완맥을 정확히 숙지하면 병맥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8) 「有胃氣者生」

周씨는 “四時の 맥상은 和緩함이 근본이 되고 緩함은 胃氣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물은 모두 土에서 생겨나기에 오래된 병에 緩맥이 나타나면 胃氣가 있는 것으로 보아 회복을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9) 「脈貴有神」

周씨는 “질병이 없는 완맥에 神이 있고 有力하다고 神이 있음은 아니다. 脈神 역시 緩脈의 이해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10) 「四時平脈」

周씨는 “봄에는 肝木이 주관하여 弦脈이 나타나고, 여름에는 心火가 주관하여 洪脈이 나타나고, 가을에는 肺金이 주관하여 毛脈이 나타나고, 겨울에는 腎水가 주관하여 石脈을 나타낸다. 四季는 土에 속하여 胃氣가 맥상에 고루 퍼짐으로써 緩함이 나타나며, 이것이 平脈을 낳게 되는 연유이다. 平은 기준이라는 의미이고, 이로써 맥의 기준을 삼아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게 하는 것이다. 緩으로써 平脈을 삼은 이후에 사시의 맥을 살피고 기준을 삼았다. 緩은 즉 胃氣이고 원래 하늘의 생성함과 땅의 형성됨을 이룬 것이니, 다른 맥과 더불어 서로 보조를 맞추고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11) 「浮沈遲數四大綱」

周씨는 “緩을 정상맥의 표준으로 삼아 平脈이라 한다면, 병맥은 浮數遲沈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기준하여 22맥을 살피면 조목이 훨씬 드러난다”고 하였다.

浮과 결합된 병증으로 傷寒, 傷暑, 傷風, 傷濕, 陰虛, 失血, 精敗, 神消의 증상을 열거하고 있다.

沈과 결합된 병증으로 痲冷, 內熱, 積痰, 冷痛의 증상을 열거하고 있다.

遲와 결합된 병증으로 表寒, 裏寒, 積寒, 虛寒의 증상을 열거하고 있다. 삭

數과 결합된 병증을 臟腑의 火와 六淫에 의하여 발

생된 風火·寒火·暑火·濕火·燥火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이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약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2) 「對待總論」

周씨는 “맥상을 살핌에 있어 浮·沈·遲·數이 음양을 대비하는 줄기가 되듯이, 나머지 맥상에 있어 형상은 비교하여 분명하게 밝히며, 또한 맥의 이치는 서로 대조하여 살핀다”고 하였다.

微와 細의 대비에 있어 微脈은 양이 약하여 끊어지려는 형태이고, 細脈은 음이 아주虛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맥은 실제 醫家들이 음양을 구별하는 관건으로 사용되기에 浮·沈·遲·數과 더불어 微·細를 모든 맥의 머리를 삼는다고 하였다.

虛와 實의 대비에 있어 ‘강유의 성질을 분석하여, 實脈은 邪氣가 實한 것이며 虛脈이란 本氣가 虛한 것이’라고 하였다.

長과 短의 대비에 있어 ‘맥의 本位에서 넘쳐난 長脈과 본위에 미치지 못하는 短脈을 구별하였으며 長短의 구분에 앞서 本位를 명확하게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弦과 弱의 대비에 있어 ‘弦脈은 맥에 힘이 있는 것이고, 弱脈은 맥에 힘이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滑과 澀의 대비에 있어 ‘滑脈은 왕래가 원활함이고, 澀脈은 막혀 잘 흐르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芤와 革의 대비에 있어 ‘虛實을 통하여 구분되니, 芤脈은 虛하면서 비어있는 것이고 革脈은 비어 있으며 實’이라고 하였다.

緊과 散의 대비에 있어 ‘긴맥은 끈이 꼬이는 듯한 형상이며 산맥은 꽃잎이 날라 다니는 듯한 형상이다’고 하였다.

濡와 牢의 대비에 있어 ‘浮하면서 가벼운 것은 濡脈이며, 沈하면서 무거운 것은 牢脈’이라고 하였다.

洪과 伏의 대비에 있어 ‘浮한 것이 가장 최고위로 드러나는 것은 洪脈이며, 沈하여 숨어있는 것은 伏脈’이라고 하였다.

結과 促의 대비에 있어 ‘맥의 도달함이 더디게 오면서 한번씩 멈추는 것을 結脈이라 하고, 빨리 오면서 한번씩 멈추는 것은 促脈’이라고 하였다.

動과 代的 대비에 있어 ‘動脈은 홀로 왕성하여 陽이

되며, 代脈은 맥의 박동이 중간에 한번씩 쉬는 것으로 陰이 된다’고 하였다.

(13) 「反關脈解」

周씨는 “寸口는 맥의 大會로 吉凶과 死生の 徵候를 판단하는데, 때로는 맥이 촌구로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肺經의 列缺穴이 비스듬히 臂側으로 기울어져 大腸經의 陽谿穴로 들어가 들쭉손가락 위에 있기 때문이며, 이를 ‘反關’이라 하며 반드시 촌구에서만 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人身을 小天地로 이해하여 ‘反關脈을 天象과 地理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天象에 비유한 길 ‘七政이 天體運行에 있어 나타나는 遲留伏逆凌犯交食宿離之忒·景客孛彗의 奇異한 現象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地理에 비유하여 ‘汝水·漢水·淮水·泗水·弱水·黑水 등의 강물이 흐르는 理致가 人身의 脈이 寸口에 모임이다’고 하였으며, ‘反關脈이 나타남은 천지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지만, 편차 때문에 반드시 질병이 됨은 아니다’고 하였다.

(14) 「七表八裡九道三余脈辨」

周씨는 ‘高陽生의 『맥결』에서 七表·八裡·九道の 강목을 정하고서 數脈이 빠져 있어 『소문』과 『맥경』의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 오류를 밝히고 분석하여 의의를 밝혔다.

즉 그는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에는 老陰과 老陽이 일을 주도하여 행하며,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는 少陰과 少陽이 일을 주도하여 행한다. 소양의 수는 7로 7은 하늘을 주관하며 하늘에는 7政이 있어 地表를 담당하고, 소음의 수는 8로 8은 땅을 주관하며 땅의 8極·8寅·8絃이 있다”고 하여 소양과 소음의 관계를 『내경』의 7損·8益에 비유하였다.

또한 周씨는 “천지의 수는 1에서 시작하여 9에서 마치기 때문에 하늘에는 9天和 9星과 9道가 있고, 땅에는 9州와 9野와 9河의 이름이 있다. 7표는 하늘을 본받고, 8리는 땅을 본받고, 9도는 천지의 9수를 따른 것이라 하였다. 7표 8리 9도의 맥상에 다시 3맥을 보충함은 마치 曆法에 마치 閏月을 두는 것처럼 우수리의 남음을 보충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과 같다”고 하였다.

(15) 「九候解」

周씨는 “寸關尺은 三部가 되며, 一部에는 각각 浮·中·沈의 三候가 있어 九候가 된다. 指擧하여 浮脈을 살펴 人체 表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頭面과 皮毛와 外感의 병을 파악하고, 指按하여 沈脈을 살펴 人체 裏部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臟腑와 骨髓과 內傷의 병을 파악하였다. 부드럽게 손을 구부려 맥을 보는 것을 尋이라 하며, 이는 맥에서 人체 中의 증후를 판단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過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한 表도 아니고 裏도 아닌 적당하고 맥상이 이르는 熨수가 적절하여 자연스러우며 질병이 없는 상태를 中 또는 和라 한다”고 하여 이를 체득함을 강조하였다.

(16) 「人迎氣口解」

左手의 關部 앞 一分을 人迎이라 하며, 右手의 關部 앞 一分을 氣口라 한다. 『맥경』에서 언급한 ‘人迎脈이 緊盛하면 風寒에 傷한 것이고, 氣口脈이 緊盛하면 飲食에 傷한 것’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 周씨는 “左寸은 원래 心의 상태를 반영하니 어떻게 心은 風寒의 邪氣를 감수하지 않는데도 風寒에 傷한 것인가? 右寸은 원래 肺의 상태를 반영하니 어떻게 肺는 飲食이 적체되는 곳이 아닌데도 緊盛하면 飲食에 傷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自答하길 “天은 左旋하며 風寒은 하늘의 邪氣이니 人迎에 나타나면 질병이 되며, 地氣는 右轉하니 人氣 역시 그러하기에 오른쪽의 上部를 寸口라 이름하지 않고 氣口하였다. 脈象의 本位로 말하면 심과 폐에 해당하지만, 邪氣의 感受에 의한 구분으로 人迎과 氣口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 「衝陽太衝太谿解」

衝陽의 動脈處는 胃經에 속하며 발등 위 5寸부위로 약간 들어간 곳이며, 太衝의 동맥처는 肝經에 속하며 엄지발가락 本節 뒤의 3寸부위로 약간 들어간 곳이며, 太谿의 동맥처는 腎經에 속하며 복숭아 뼈 뒤쪽과 뒤꿈치 뼈 사이이다.

周씨는 이러한 “발등 부위의 動脈處에서 脈象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어, 양쪽 발이 脈의 根本을 세

우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人身의 陽氣는 아래에서부터 생기고 또한 아래로부터 없어지기에 두 발에 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두 손에 병맥이 없더라도 수명을 오래 연장할 수 없다. 또한 두 손에 맥이 없더라도 두 발에 맥이 나타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三指禪』卷1에 記載된 周學霆의 醫學說

(1) 「奇經八脈」

周씨는 “醫家가 奇經八脈인 督脈·任脈·陽維·陰維·陽蹻·陰蹻·衝脈·帶脈의 작용을 이해하면 바로 12경맥과 15락맥의 요지를 얻게되며, 修練家가 기경팔맥을 이해하면 바로 龍虎升降과 元牝幽微의 오묘한 법칙을 얻어 의학에 입문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奇經八脈을 순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人체 元陽之氣는 下部에서 생성되고 소멸됨에 있어 督脈과 任脈의 尾閭關과 夾脊關의 雙關을 순환을 강조하였다.

즉 “독맥을 통하여 經氣를 상행시키면 음·양·유·교맥이 독맥을 따라 상승하고, 임맥이 통하여 經氣를 하강하면 음·양·유·교맥이 임맥을 따라 하강한다. 衝脈의 순환은 會陰穴로부터 기시하여 위로 머리에 이르고 아래로 깊은 언못에 이르게 하며, 帶脈의 순환은 季肋穴로부터 일어나 왼쪽으로 36번 오른쪽으로 36번 회전하며 운행한다”고 주장하였다.

(2) 「臟腑說」

周씨는 “사람의 몸은 하나의 太極이다. 陰에서 五臟을 생하고 陽에서 五腑를 생하며, 움직이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면서 서로 같은 뿌리에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五臟의 설명에 있어, “吸門으로 내부의 氣管으로 연계되는 肺와 心은 膈上에 위치하며, 脾와 肝과 腎은 腹下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五腑의 설명에 있어, ‘食管으로 연계된 것은 胃와 小

腸과 大腸을 하나의 管으로 통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밑으로는 구멍이 뚫려 있으나 위로는 입구가 없는 膀胱과 위로 입구는 있으나 아래로 뚫린 곳은 없는 膽과 대비'를 통하여 설명하였고, “六腑의 하나인 三焦와 心包絡은 經으로는 존재하지만 形은 없다”고 하여 五腑說을 주장하고 있다.

五臟을 주역의 卦象과 연계하여, “離는 心火로 南位하며, 坎은 腎水로 北位하며, 坤은 脾土로 中央에 거처한다. 震은 肝木에 해당하여 肝氣가 左行하며, 兌는 肺金이 해당하며 肺氣가 右行한다고” 설명하였다.

五腑의 위치에 관하여 설명하길, “맨 처음에는 胃에서 水穀을 받고, 그 다음에는 小腸이 받아 청탁을 나눈다. 여기에 大腸이 그 수곡을 소화시키고, 膀胱이 水를 滲泄시키며, 膽은 그 일을 맡아 행한다”고 하였다.

臟腑陰陽의 배합관계에 있어, “心小腸은 丁丙共宗으로, 肺大腸은 辛庚一本으로, 脾胃는 己戊伴居로, 肝膽을 乙甲同체로, 腎膀胱을 癸壬并源으로, 包絡三焦를 管衛相親”으로 설명하였다.

陰陰陽陽相濟의 결과로 “三陰은 하늘에서 내려와 수태음폐와 수소음심과 수厥음심포락을 인체의 상부에서 나열되어 있고, 三陽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니 수양명대장과 수태양소장과 수소양삼초가 인체의 하부에서 나열되어 있다. 그 가운데 脾陰胃陽과 肝陰膽陽과 腎陰膀胱陽이 상호간에 迭濟한다”고 하였으며, 이들간의 작용을 臟腑經絡陰陽多少臟腑機能을 통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命門의 개념에 있어 “人身의 근본이 命門이니, 그 위치를 논술함에 있어 고정된 부위가 없다. 이를 坎爲水の 坎陰包乎陽인 坎의 卦象은 兩邊에 陰爻가 되며 가운데 陽爻가 命門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3) 「三焦辨」

周씨는 삼초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신장의 형상은 마치 豇豆와도 같고, 비장의 형상은 말굽과 같고, 심장의 형상은 연꽃과 같고, 폐장의 여섯 잎 파리의 형상은 華蓋와 같고, 간장의 일곱 잎 파리의 형상은 甲折과 같은데 삼초 역시 잎 파리가 있어 헤아릴 수 있으니 그 형상은 미루어 짐작하라”고 하였지만 구체적인 삼초의 모양은 서술하지 않았다.

삼초의 기능에 관하여 “마치 天地의 三元과도 같이

五臟의 우두머리이며, 六腑와 營衛와 經絡之氣 그리고 모든 氣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腎臟은 元氣之正이 되고, 三焦는 元氣之別이 되어 명문과 함께 거처한다”고 하였다.

일반 의가들의 인식인 삼초의 맥위가 右尺部이란 생각에 있어, 周씨는 앞에서 언급한 삼초의 기능을 강조하려 寸關尺의 三部를 모두 살피라고 하였다. 그 이유를 “上焦는 내부를 주관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고 膻中 부위를 다스리며, 中焦는 수곡을 소화시키는 일을 주관하고 臍傍을 다스리며, 下焦는 주로 내보내는 것을 주관하고 臍下一寸을 다스린다. 상중하의 삼초가 가지런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4) 「心包絡辨」

『素問靈蘭秘典論』에는 “心을 君主之官이라 지칭하였고, 『難經25難』에는 “包絡이 心主이다”고 하였다. 대개 心은 有形之官의 주인이며 包絡은 無形之官의 주인이다.

周씨는 包絡을 有形의 囊籥에 비유하길 “밀이 없는 주머니를 囊이라 하고 구멍이 있는 피리를 籥이라 하는데, 가운데가 하나의 구멍이 있어서 사람이 만져 느낄 수 없으니 심포락은 이와 같다”고 하였다.

周씨는 包絡經의 작용을 “膻中에서 기시하여 지능 없이 모든 경락을 통솔하는데, 원래 지능의 존귀하고 형체가 없어 그 작용이 가장 신비롭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는 “하늘과 땅 사이는 84000리의 공허한 거리를 인체의 심장과 신장의 거리는 8寸 4분에 해당함을 비유하고, 心主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직능을 私意 없이 施行함”을 情志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5) 「膻中解」

膻中은 兩乳의 중간 부위에 氣가 모이는 바다로 경락은 없지만 지능은 있다. 『內經』에 “膻中은 臣使之官이며 喜樂이 나타나는 곳이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周씨는 “사람이 태어나면 먼저 울게 되며, 지식의 눈이 열리면 일이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이해하게 되고, 점차 客氣가 침범하면 본래 흐르던 충만한 기운은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周씨는 불교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태어남 병듦 늙음 죽음 고통이란 輪廻觀을 설명하였고, 『傳燈錄』, 『普悲寺

碑』、『涅槃經』、『菩提樹頌序』、『聖教序』、『維摩經』、『法華經』、『維摩詰經』、『羅湖野錄』、『元圃講頌』、『道室詩』 등의 佛敎故事를 통하여 人間의 性情이 膾中에서 나옴을 설명하였다.

(6) 「丹田解」

周씨는 “배꼽아래에 있는 丹田은 생명의 기운이 활발히 나타나는 곳으로 寸으로 헤아려 나눌 수는 없으며, 원기는 兩腎에 근본을 두고 단전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梯云道人·了悟山人·夢覺道人 등과 함께 仙道를 연구하여 배꼽 아래가 丹을 저장하는 장소임을 이해하였다. 그는 丹을 水中之鉛을 불에 精鍊한 金精一點이라 파악하였고, 동틀 무렵의 새벽달의 작은 흔적인 이슬인 坎戊의 月精을 언급하며 貞元이 회합한 眞氣가 人身을 구성한다는 『參同契』의 納甲法을 이해한 흔적이 원문에서 나타난다.

또한 그는 仙道の 理想鄉인 武陵桃源을 謝子와 경험한 사실을 언급하였고, 이를 陶淵明의 『桃花源記』에 비유하고 있다.

III. 結 論

이상과 같은 本論과 考察을 통하여, 『三指禪』卷1을 통하여 周學靈의 醫學思想에 관한 研究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脈學源流」편에서 律管을 본받아 맥을 정하는 象數學的인 觀點을 설명하고 있다.
2. 「六部脈解」편에서 脈象部位의 구분보다는 脈象理解를 통하여 神을 밝힘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左心膾中肝膽腎小腸右肺胸中脾胃命大腸辨」편에서 周씨는 李時珍의 脈位에 관하여 다른 관점을 제시하여 “左手에는 心·小腸·肝·膽·腎·膀胱을 배속하였고, 右手에는 肺·大腸·脾·胃·腎·命門을

배속하였다.

4. 「二十七脈名目」편에서 緩脈을 平脈으로 삼아 나머지 26맥인 虛·實·長·短·弦·弱·滑·澁·芤·革·緊·散·濡·牢·洪·伏·促·結·動·代의 病脈으로 분류하였다.
5. 「定至數」·「有胃氣者生」·「脈貴有神」·「九候解」篇 등을 통하여 緩脈은 平脈이며 中의 의미로 脈神 역시 緩脈의 이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6. 「浮沈遲數四大綱」편에서 병맥은 浮·數·遲·沈을 기준으로 삼아 22맥을 판별하였다.
7. 「對待總論」편에서 微와 細·虛와 實·長과 短·弦과 弱·滑과 澁·芤와 革·緊과 散·濡와 牢·洪과 伏·結과 促·動과 代의 對比를 통하여 맥의 형상과 이치를 밝히고 있다.
8. 「反關脈解」편에서 人身을 小天地로 이해하여 反關脈을 天象과 地理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9. 「七表八裡九道三余脈辨」편에서 周씨는 高陽生의 『맥결』에선 七表·八裡·九道の 강목을 정하고서도 數脈이 빠져 있어 『소문』과 『맥경』의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 오류를 밝히고 분석하여 의의를 밝혔다.
10. 「人迎氣口解」편에서 左手의 關部 앞 一分은 人迎이며 右手의 關部 앞 一分을 氣口라 설명하고, 이는 邪氣의 感受에 의한 구분으로 人迎과 氣口라 命名한다고 주장하였다.
11. 「衝陽太衝太谿解」편에서 발등 부위의 動脈處에서 脈象을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어, 양쪽 발이 脈의 根本을 세우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12. 「奇經八脈」편에서 奇經八脈을 순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인체의 元陽之氣는 下部에서 생성되

- 고 소멸됨에 있어 督脈과 任脈의 尾閭關과 夾脊關의 雙關循環을 강조하였다.
13. 「臟腑說」편에서 五臟의 位置를 卦象과 연계하였고, 五腑의 위치를 기능으로 나누어 논술하였다. 또한 그는 臟腑陰陽의 配合關係 陰음陰陽相濟 經絡運行 陰陽多少 臟腑機能 등을 참고하여 六腑로 구분할 때는 六臟으로 인식하고, 五臟으로 구분할 경우는 五腑로 인식하였다.
 14. 「三焦辨」편에서 三焦를 無形論의 機能的인 側面을 強調하여, 삼초의 脈位를 寸關尺의 모든 三部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15. 「心包絡辨」편에서 包絡을 有形論의 橐籥에 비유하여 職能을 論술하고 있다.
 16. 「臆中解」편에서 佛敎의 輪廻觀을 통한 인간의 감정인 臆中에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17. 「丹田解」편에서 眞氣와 丹을 관련시켜 해석하여 練丹의 체험을 仙道思想에 두고 論술하고 있다.
 9. 金泰熙 외1人, 「內經의 脈診과 後代醫家說의 比較 研究」, 慶熙大學論文集, Vol.10, 1987
 10. 朴炫局 외1人, 「脈經」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11. 黃元德 외1人, 「氣口脈診法의 臟腑配位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12, 1999.
 12. 中央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台北 中國文化大學, 1985.

IV. 參 考 文 獻

1. 周樂道 외2人點校, 『三指禪』,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2. 喻昌, 醫門法律, 東南出版社, 1986
3. 劉完素, 河間三六書, 成輔社, 1976
4. 李仲梓, 醫宗必讀, 台北 文光圖書公社, 1977
5. 裘沛然 외24人, 『中國醫籍通考』卷1,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6. 莊澤澄, 『中醫診斷學』, 科學出版社, 1992
7. 趙恩儉, 『中醫脈診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0
8. 張家錫, 『中醫診斷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91